

신기술 개발과 발명활동에 정진



김 종 갑
특 허 청 장

전국의 발명인 여러분,
영예로운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발명인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남다른 창의력과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발명인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빈 여러분 !

세계는 지금 창조적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부와 성장의 원천이 물질적 자원으로부터 지식과 정보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식·기술·정보와 같은 무형자산이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과 같은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을 선점하고, 신기술 개발과 보호를 강화하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발명으로 세계 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대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세계 첨단기술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특허출원 순위도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전자출원율이 89%에 달하여 세계 1위의 특허행정 인프라도 구축하였습니다.

발명인 여러분 !

우리는 지금 소득 1만불 시대에서 2만불 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기술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와 세계최고의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2007년까지 세계 6대 지식재산 강국의 위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연구개발된 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현재 21개월인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권리화된 특허기술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화 단계별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크나큰 공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신기술 개발과 발명활동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발명입국의 내일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